



한국의 對 중국투자 작년 급감

'08년 對 중국 직접투자 건수, 금액 모두 -30% 이상의 큰 폭 감소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최근 자료에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對 중국 직접투자는 '08년 1,343건, 38.3억 달러로 투자건수, 금액 모두 전년대비 -39.5%, -30.8% 감소했다. 이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철폐 등 투자환경 악화와, 위안화 절상,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금액은 IMF 직후인 '99년 이후 '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08년 급속히 감소, 투자건수도 '06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對 중국 직접투자 지난해 30% 이상 감소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꾸준히 감소하여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제 1투자국으로 부상했다. '08년 대 중국 투자건수와 금액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비중은 각각 31.7%, 17.5%로 각각 전년대비 4.9% 포인트, 7.9%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08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투자금액은 '07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07년 217억 달러, '08년 218억 달러)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제 1투자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는 '03년, 금액은 '05년 각각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기업들이 중국 투자환경의 악화로 인해 투자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캄보디아투자지역으로 부상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투자 증가가 두드러져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가 중국을 대체하여 이들 지역으로 이루어짐을 유추하게 한다. 對베트남투자는 5.9억달러('06년), 13.5억달러('07년), 13.2억달러('08년)이고, 對캄보디아투자는 1.3억달러('06년), 6.3억달러('07년), 4.7억달러('08년)이다.

'08년 말 對중국 직접투자 누계는 19,960건, 272.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건수와 금액의 각각

45.4%와 23.5%를 기록했다. 기업규모별 현황을 보면,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투자금액, 건수가 감소했다. 투자금액 기준 대기업은 전년대비 -36.5%, 중소기업은 -16.5% 감소하여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모두 큰 폭의 투자 감소 기록한 것이다.

투자건수는 대기업은 107건('07년)→91건('08년)으로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은 '07년 915건에서 '08년 575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08년 대기업 투자금액이 전체 중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년 55.7% 기록, '06년 이후 대기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건당 투자금액 증가

건당 투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건당투자금액은 1,747천 달러('07년)→2,338천 달러('08년)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영세 중소기업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며 기인한다. 대기업의 건당 투자금액은 33,960천 달러('07년)→25,373천 달러('08년)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투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고,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급속히 감소했다. '08년 해외투자 건수가 -30%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05년 107건에 불과하던 현지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07년 865건, '08년 775건으로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05년 798건에서 '08년 228건으로 급속히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대기업 구분 없이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이미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

기업 모두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내수시장 진출 목적 확산

'08년 신규투자 건수 중 대기업의 경우 전체의 60.7%, 중소기업 등은 전체의 57.5%가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를 실시하여 내수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대세를 형성하는 것이다.

투자지역별, 업종별 현황을 보면, 산둥, 북경, 요녕, 강소, 상해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08년에는 강소성, 북경, 천진으로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요녕성으로의 투자는 증가. 요녕성은 STX의 대련 조선소 관련 투자가 늘면서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08년에도 대중투자는 주로 동부 연해지역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동부연해지역 이외의 중서부지역 등으로의 투자는 미미한 수준으로 아직까지 우리기업들의 중서부지역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계기준으로는 산둥, 강소, 북경, 천진, 상해, 광둥의 순이다.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으로의 투자가 여전히 많으나 비중이 줄어드는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업종별 투자순위는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순. 제조업으로의 투자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제조업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으로의 투자금액은 할인점 등의 투자에 힘입어 크게 증가했다. '08년 도소매업 투자금액은 540.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대기업의 할인점 관련 투자 증가에 기인한다.

할인점 투자에 급증

제조업 투자는 기술 및 자본집약적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제조업에서는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분야로의 투자는 줄어드는 가운데 전자통신,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 등 기술집약적 분야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소 요녕 천진 등은 전자통신 기계 장비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산둥은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된다.

중국으로의 신규투자는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투자는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원가절감형 투자지로서의 매력 감소하고, 원화 환율의 위안화, 달러화 대비 급속한 절하로 투자 금액이 훨씬 많이 소요되며, 세계경제위기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통신 등 기술집약적 투자분야로

신규투자 감소와 더불어 기 진출 기업들의 철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임생산을 목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위안화 환율 절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원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 중국 현지 생산비용 상승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최근 우리나라로 U턴하는 기업들도 일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정부의 정책방향도 산업구조 고도화, 자원 과다 소비 및 환경오염 업종 규제, 노무관리 강화, 세제혜택 폐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공무역기업들의 경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노동집약적 산

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철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자본력 기술력 확보된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될 듯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중국이 위안화 환율 상승,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저가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낮아지는 반면, 내수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여 내수시장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전체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중국 내수시장 진출목적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가 저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산업 등의 투자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선진제조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등 4개 분야에 집중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것을 천명하여 향후 중국투자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기업 및 건실한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